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박 은 희 2)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3학년 341명을 대상으로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취적 양육태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율적 양육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예측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교사가 통제행동을 하는 것 보다 자율성 지지 행동을 할 때,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의 자율성지지, 자기주도 학습능력

1)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것임.

2) 교신저자, ribbon0313@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여 창의적인 정보를 만들어 내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 창의적인 인간은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여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 한다. 창의적 인간형 육성은 새로운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교사주도의 의존적인 학습으로는 더 이상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최인선, 주은지, 2013).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학습자의 심리적 차원을 고려한 연구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7차 교육과정개정안(2009)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다(Knowles, 1975). 또한 “어떤 강력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통제와 관리에 의하여 어떤 학습상황에 임하고 집중하며, 의문점을 가지고 비교하며 대조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메타 인지적 행동의 과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은 그 어떤 형태의 학습보다도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성이 강조되는 학습형태로서 개인 학습자의 적극적인 태도나 책임성은 학교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에서 그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은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꾀하고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이를 통해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0).

자기주도 학습은 개인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가정환경 중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정서발달과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성심, 이종승, 1982; 이강자, 20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 발달 특성과 지적·정서적 행동에 다르게 나타나며,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Becker, 1964).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태, 이경님, 2009)에서 자율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 가치관은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측 할 수 있게 해준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습자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것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습목표와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업적인 자신감을 갖는 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 학업성취 향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이수정, 2012). 대학입시가 청소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되어 있는 한국교육의 현실에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민정숙(2011)은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인 관계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따라서 자녀와의 상호 작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인 특성이 달라 질수 있다(오성심, 이종승, 1992).

학습자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환경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개선과 교육제도가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중·고등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짝 짜여진 시간표대로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높은 자기효능감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교사는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우선 학생들에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만족시켜주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욕구는 자율성이다(허예빈, 김아영, 2012).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는 행동들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을 지지하느냐, 통제하느냐가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김혜경, 2010).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들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선택하여 착수한 일을 격려해주며 학생의 행동에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행동이라고 하였다(허예빈, 김아영,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학생들의 기본 심리욕구를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0; 민정숙, 2010; 박정미, 2010; 이강자, 2011; 이단순, 2006; 이혜란, 2008; 정정애, 2008).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확인한 선행연구들 중 김지자(2000)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이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상당히 중요한 관련성을 갖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상이 유아나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 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택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에서 자율성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학업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측정하고,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환경에서 자기주도성이 발휘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밝혀내어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자료로 쓰일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 및 수준에 알맞게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 실천함으로써 학습이나 발달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꾀하는 능력이다(이수영, 2012). 이것은 학교 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길러질 뿐 아니라, 이들이 인격적,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상당히 길러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자기주도 학습과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부모 양육태도를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아동들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검증을 실시한 결과로 살펴보면 집단 간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상위집단 아동들은 하위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부모양육태도를 보다 애정적, 자율적, 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력과 상당히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0). 박지현(2010)도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증상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결과를 지지하였고, 이해란(2008)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 지향적, 합리적일 경우 아동의 자기주도성도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학력도 높아질 것이라 하였다.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은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와 관련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변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박외자(2009) 역시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자녀가 긍정적으로 자각할 때,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정정애(2007)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경우는 성취와 애정, 어머니의 경우는 애정, 성취, 자율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성취 지향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 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했고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학습자들이 자기조절학습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요인에 따라 설명력을 달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요인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교육장면에서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는 자율성 지지에 관한 것이다. 자율성에 관한 욕구가 내재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자율성을 지지하는 분위기나 풍토를 제공하는 것이 학업수행이나 직무수행에 과연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확인하는 연구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한재숙, 2017). 외적 조절이 내재화되는 것에는 환경적 조건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은 개인에게 선택권과 스스로 방향설정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다(김아영, 2010). 이러한 환경은 압박감을 느끼는 평가와 부과된 목표나 요구사항을 최소화 시켜 준다(천승현, 2012).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은 외적 조절을 내재화하여 내재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환경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따라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들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선택하여 시작한 일을 격려해 주며 학생의 행동에 지지적 이고 반응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들의 기본적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예빈, 2012). 교사의 자율성지지 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는 학업 성취동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실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한재숙, 2017). 이러한 학업 성취 또는 학업 성취동기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는 자율성 지지를 통해 학생들을 위해 학습 내용이나 순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학습태도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율성 지지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천승현, 2012). 자율적 선택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흥미를 증진시키므로 과제내용이나 목표설정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북 C시에 소재한 일반계열 S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중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해당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로 C시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같은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현재 공통의 학교환경에 있는 남학생 178명, 여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성별의 구성을 균등하게 실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년별 구성이 고르지 못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의 학생을 제외한 34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71	50.1
	여	170	49.9
학년	1학년	26	7.6
	2학년	143	41.9
	3학년	172	50.4
전체		341	100.0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고등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이 지난 후 2018년 7월 3일부터 7월 10일 까지 1주간 설문조사를 하였다. 학교의 여건상 연구자가 직접설문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구의 취지와 설문방법을 해당학교의 선생님들께 직접 설명하고 일주일동안 재량권한의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한 후 설문작성이 끝나는 날에 연락을 받고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 연구 도구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로 오성심,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검사를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0)가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전체 30개 문항과 3개 하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문항별로 부모 각각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 의 양자택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는 각 하위 요인별로 최저 10점부터 최고 50점 까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더욱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인 방향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애정-적대’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통제’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양육태도’, ‘성취-비성취’의 양육태도를 ‘성취적 양육태도’ 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하위요인과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다음 <표 III-2>, <표 III-3>와 같다.

<표 III-2> 부모 양육태도 검사 문항 구성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애정적 양육태도	1, 4*, 7, 10*, 11, 14, 15, 18*, 22, 23	10
자율적 양육태도	3, 6, 8, 12, 16, 20*, 21*, 24, 25*, 30*	10
성취적 양육태도	2, 5, 9, 13, 17, 19, 26, 27, 28, 29	10

* 역채점 문항

<표 III-3> 부모 양육태도 검사 하위 요인과 신뢰도

변인	요인	Cronbach' s α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643
	자율적 양육태도	
	성취적 양육태도	

(2)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 검사

본 연구의 교사의 자율성지지 검사는 교사가 고등학생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지지함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Williams, Grow 와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 설문지(The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변안한 채희숙, 정양수(2013)의 교사 자율성 지지 검사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 지지 검사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율권과 선택권을 부여하고 존중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한 개의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자율성지지 검사지의 8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907이었다.

(3) 고등학생이 지각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본 연구는 West와 Bentley Jr.(1990)의 것을 유귀옥(1997)이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항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귀옥(1997)은 사회교육전문가 6명과 대학원생 3명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Cronbach's α 0.73의 신뢰도를 얻었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전체 Cronbach's α 는 .855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문항 구성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학습에 대한 애착	1, 3, 8, 12, 14, 25, 26, 27	8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5, 9, 13, 17, 21, 22, 31, 32	8
도전에 대한 개방성	2*, 4, 10*, 15, 23, 24, 28, 30	8
학습에 대한 호기심	16, 18, 19, 20	4
자기이해	7, 11	2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6, 29	2
전체		32

*역채점 문항

IV. 연구결과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평균(3.34)을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누어 자기주도 학습능력 점수를 t-검정 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인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 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지 검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부모의 양육태도 총집간 자기주도 학습능력 총점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t	p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상	155	3.73	.40	9.42***	.000
하	186	3.32	.40		

***p < .001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t=9.42, p<.001)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평균값은 각각 3.72, 3.31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일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지 검증한 결과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상하집단의 사례수	자기주도 학습능력		t	p
		평균	표준편차		
애정적 양육태도	상	194	3.61	5.38*	.000
	하	147	3.36		
자율적 양육태도	상	212	3.56	3.18*	.002
	하	129	3.41		
성취적 양육태도	상	160	3.70	8.56*	.000
	하	181	3.33		

*p < 0.05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t=5.35, p<.05), 자율적 양육태도(t=3.18, p<.05) 및 성취적 양육태도(t=8.56, p<.05)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에 따라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요인별 차이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하위요인별 차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부모의 양육태도	상(N=155)		하(N=18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습에 대한 애착		3.73	.57	3.33	.61	6.33*	.000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3.76	.66	3.27	.47	7.64*	.000
도전에 대한 개방성		3.52	.40	3.24	.37	6.73*	.000
학습에 대한 호기심		3.81	.67	3.36	.70	6.08*	.000
자기 이해		3.81	.63	3.32	.67	6.95*	.000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3.73	.66	3.39	.69	4.55*	.000

*p < .0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학습에 대한 애착은 (t=6.33, p<.05),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t=7.64, p<.05), 도전에 대한 개방성(t=6.73, p<.05), 학습에 대한 호기심(t=6.08, p<.05), 자기이해(t=6.95, p< .05),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t=4.55, p<.05)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요인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와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자기주도 학습능력 점수를 t-검정하였다.

교사의 자율성지지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IV-4>과 같다.

<표 IV-4>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

집단	교사의 자율성지지 사례수	자기주도 학습능력		t	p
		평균	표준편차		
상	167	3.66	.42	6.56***	.000
하	174	3.36	.43		

*** p < .001

자기주도 학습능력($t=6.56, p<.001$)은 교사의 자율성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평균값은 각각 3.65, 3.35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높은 집단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적, 애정적, 자율적으로 자각할수록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수영(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상·하위 집단으로 나누어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박지현(2010)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박지현(2010)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상위집단 아동의 경우 하위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자율성지지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서 자율성을 지지하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된다(김아영, 2010; 허예빈, 2012).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부재는 지식·정보 생산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유의미 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 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학생의 기본적인 심리 요인들이 반드시 학습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현장에서 통제 위주의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내리기보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화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율성을 지지 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이러한 연구에서 얻는 논의와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가 가진 한계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북 C시의 국한된 비평준화 인문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도 341명으로 그리 많은 수는 아니므로 고등학생 전체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적 한계와 양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가 필요 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비율을 고르게 표집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년별 비율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적게 표집하면서 고등학생 전 학년으로 일반화 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 검사도구의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이 응답한 각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 보고 이외에 보다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있어 보다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판단은 피험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실제의 부모 양육태도가 어떠한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연구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일치와 차이를 알아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만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박현정, 2005; 양애경, 조호제, 2009; 윤해진, 2003; 주희진, 2011), 학업성취도 까지 결과를 예측해 볼 수는 있으나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시켜 학업성취도까지의 관계를 밝혀낸다면 교육현장에 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수란(2006). 인문계 학생의 학업성취의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2), 1-29.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05.31.제 2차 대통령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1997). 제 7차 교육과정 총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1997-25호.
- 권선이(2011).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목표 지향과 학업적 효능감의 중다 매개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김아영(2010). **학업동기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정환, 박용휘(2003).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진단척도의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6(1)183-199.
- 김주영(2010). 교사의 조건부 관심 및 자율성 지지와 학생의 학업참여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 동기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주후, 김주아, 강선우(2006).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설명 및 유형화 분석. **교육방법연구**, 18(2), 231-237.
-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력과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12(1). 177-208.
- 민정숙(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 자녀관계와 성취에 관한종단연구: 자아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태, 이경님(2009). 부모변인과 아동의 유능감 및 내재적 통제소재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5-19.
- 박외자(2009).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박지현(2010).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자기 조절 능력 증진과 공격성 감소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박정미(2010). 부모 양육태도, 자기 통제력,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배영주(1994). 성인교육방법으로서의 자기 주도 학습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양명희(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탐색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양애경, 조호제(2010).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한국교육논단**, 8(3), 61-82.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 노트, 11(1). 통권112호.

- 유귀옥(1997).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양숙(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인지양식과 정서대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윤석진(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강자(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지향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수영(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수정(2012).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가천대학교.
- 이혜란(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장미영(200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정애(2007).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천승현(2012).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체육교사의 동기부여방식과 심리적 욕구 및 정서참여 간의 관계 검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14(2), 35-49.
- 최인선, 주은지(2013).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의 연구동향과 과제. 호서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 한재숙(2017) 중학생이 지각한 체육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체육교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허묘현(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허예빈(2012).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홍영표(2002).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와 관련변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채진(2011). 메타인지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Assor, A., Kanat-Maymon, Y., & Roth, G. (2005). Directly controlling teacher behaviors as predictors of poor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anger anxiety. *Learning and Instruction*, 15, 397-413.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andy, Philip C.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Finklestein, S. J. (1979). Parental representation and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4), 388-397.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 Long, H. B. & Walsh, S. M. (1993). Self-directed learning research in the community junior college: Descripti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7*(2), 153-166.
- Schaefer, E. S. (198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84-88.

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itude,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Eun Hee Park

Jecheon Digital Electronic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teachers' autonomy support a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of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341 high school students from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A survey instrument was used to measure parental attitudes, teacher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aring attitudes of parents were perceived by the participants as oriented more toward being attainable and relatively less self-direc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ough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ir parents' attitudes as more attainable-oriented. The results also show that, in terms of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more goal-oriented, compassionate, and autonomous the parental attitudes are, the likelier are students to have developed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Second, the male students were more aware of the autonomy support of teachers than were the female students. This shows that the results have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over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ly, the perception of autonomy support by teachers affects the develop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among students. We can therefore conclude that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develop most effectively in students who are supported by their teachers.

Key words: *parental attitude, teachers' autonomy suppor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논문투고일자: 2019.1.21.

논문심사일자: 2019.4.18.

게재확정일자: 2019.4.23.